

9~10월의 해충 —도토리거위벌레(회색거위벌레)—

변병호/임업연구원 산림곤충과장

이 해충은 1979년 서울에서 최초로 발생이 확인되었으며 현재는 거의 전국에 확산되어 도토리에 많은 피해를 줄 뿐 아니라 참나무의 작은 가지들 입으로 잘라 지면에 낙하시키므로 참나무류가 많은 지역에서는 경관을 크게 저해할 우려가 있다.

분포: 한국, 일본, 중국, 소련

가해수종: 상수리나무, 신갈나무, 갈참나무, 떡갈나무, 졸참나무등, 참나무류.

가해상태: 참나무류의 종자(도토리)에 성충이 입으로 구멍을 뚫고 알을 낳은 후 도토리가 달린 1년생 가지를 칼로 자른듯이 매끈하게 절단하여 땅으로 떨어뜨리기 때문에 이 해충의 피해는 쉽게 발견할 수 있다. 피해가 심할 때는 땅위에 작은 가지가 소복하게 쌓여 있으며 때로는 절단된 가지가 나무가지에 걸려 있거나 또는 절단시 수피 일부가 가지에 붙어 절단된

가지가 나무에서 빨갭게 말라 산을 붉게 물들게 할 때가 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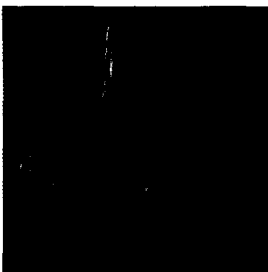
형태: 성충의 몸 길이는 5.5~10mm이며 몸은 흑·암갈색이고 희미한 동청색(銅青色)의 광택이 있다. 몸 표면에는 회색의 털이 밀생하고 등쪽에는 흑색의 털이 드문드문 나 있다. 주둥이는 날개의 길이와 비슷하게 길고 촉각은 11마디이며 선단 3절부터 팽배되어 있다. 알은 길이가 1.3mm, 폭이 0.1mm이고 유백색이며 부화 직전에 황색으로 변한다. 노숙유충의 몸길이는 7~11mm이고 색깔은 유백색이며 몸은 앞으로 굽어 있다. 번데기는 유백색이며 꼬리에 갈색의 자모(刺毛)가 한쌍 있다.

생활사: 1년에 1회 발생하며 노숙유충이 땅속에서 흙집을 짓고 그 속에서 월동한다. 6월 중순부터 번데기가 되기 시작하며 번데기 기간은 21~33일이다. 성충의 우화시기는 7월초순~9월

하순 사이이며 최성기는 8월상순이다. 우화한 성충은 미숙한 도토리에 주둥이를 꽂고 흡즙하며 생활하고, 오후 5시경에 가장 산란을 많이하며 산란수는 20~30개이다. 산란습성은 주둥이로 도토리에 구멍을 뚫은 후 산란관을 꽂고 1회에 1~2개씩 낳은 후 가지를 주둥이로 잘라 땅으로 떨어뜨린다. 알의 기간은 5~8일이며 부화한 유충은 도토리의 과육을 먹으며 2회 탈피한 후인 20일 후에 종실을 뚫고 나와 땅속 3~9cm 깊이까지 들어가 흙집을 짓고 겨울을 지낸다.

방제법: •성충이 산란한 후에 땅에 떨어뜨린 피해과가 달린 작은 가지를 모아 태운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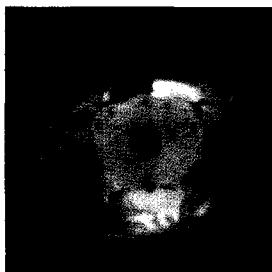
•성충우화 최성기인 8월상순을 전후하여 10일 간격으로 2~3회에 싸이스런, 메프제등을 수관에 살포한다. ☞



땅에 떨어뜨린 피해지



도토리거위벌레의 성충



도토리거위벌레 유충이 과육을 먹고 있는 피해 도토리



도토리거위벌레가 산란한 흔적